고합, 나일론SF시장 독점

코오롱 시장침투 안간힘 … 가동률 상향조정 자급도 높여야

고려합섬이 나일론 SF(Staple Fiber시장을 독점, 기타 화섬업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일론 SF는 현재 고려합섬이 일산15톤으로 국내 독점 공급해 왔으나 최근 코오롱이 신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오롱은 월간 20~30톤을 생산, 시장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2년 기준 나일론 SF의 국내수요는 5310톤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국내공급은 2180톤으로 41.1%를 차지했고 나머지 3130톤 58.9%는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일론 SF의 국내공급은 대부분 고려합섬에서 생산했고 수입은 일본의 Toray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은 나일론F 설비를 이용해서 SF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일론 SF는 고려합섬이 연산 55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수요가 더욱 늘어날 경우 공급이 타이트해져 수입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오롱의 SF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그레이드 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기술 개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나일론 SF의 가격은 국산제품이 KG당 평균 2500원선에 거래되고 있고 수입품은 3600~3700원선으로 국산제품보다 30.6~32.4%정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일론 SF는 부직포 Interlining 중 공업용에 많이 소비되고 그 밖에 의류용, 산업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3/9/20>